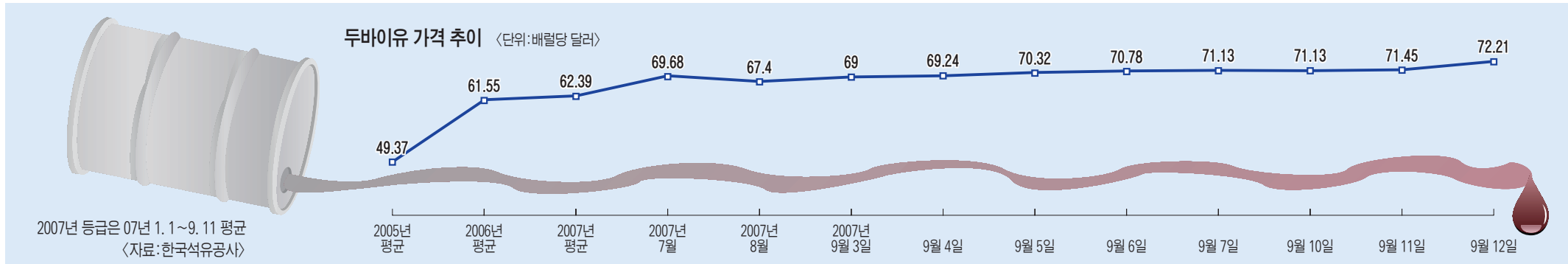


[경제]



두바이油 사상 최고... 경기회복 발목잡나

(배럴당 72.21달러)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공급으로 국제 석유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8월 하순부터 재상승의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온 세계 석유시장에서 11일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선물과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파동으로 인한 세계 경제성장 후퇴 우려와 11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예상치를 하루 50만 배럴 증산 결정 등 유가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믿어졌던 요인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제유가 '시계 제로' = 정부와 석유공사,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이 참가하는 국제유가 전문가 회의는 가장 최근 모임이었던 지난달 22일 회의에서 3·4분기 국제유가를 배럴당 63~65달러선으로 전망하고 멕시코만 허리케인의 타격 등으로 세계적 공급차질이 발생할 경우나 배럴당 70달러선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석유시장 요동... 세계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 고유가 장기화엔 내수·투자 등 실물경기 위축

9월을 넘어서면 미국의 휘발유 상승기가 끝나고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대두함에 따라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전망의 근거였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완전히 빗나가고 있다.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8월10일 65달러대를 단기 저점으로 찍었다가 11일엔 72.21달러로 13개월만에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중국·중동이 '블랙홀' = 세계 휘발유의 대표적 여수 수요인 미국의 드라이브 시즌(5월 하순~9월 초순)이 끝나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세계 경제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등장한 때인 고유가 국면에는 비(非)서

방국의 수요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전 세계의 석유수요 증가량은 하루 800만 배럴선이다. 이 수요 증가량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분량이 12.5%인데 비해 32%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석유수급 문제의 심각성은 중국 탓만은 아니라는 데 있다. 800만 배럴의 석유수요 증가분 가운데 22%는 바로 OPEC 산유국들이 쓴 것이다.

◇회복경제에 찬물 = 고유가 상황이 허리케인이나 생산시설의 가동 중단과 같은 일시적 요인이 아니라 중국과 중동의 '쌍끌이' 수요증가에 뒷받침되면서 단기내 진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

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럴 경우 하반기 들어 가파르다 회복기조에 들어선 국내 실물경기는 찬물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7월 초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5%에서 4.6%로 올려잡았다.

내수와 투자의 완만한 회복, 수출호조 등이 성장률 전망 상향의 주된 요인이었지만 적어도 유가가 이 정도로까지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제유가 수준을 연초 배럴당 58달러(두바이유 기준)에서 62달러로 올려잡으면서 "하반기 유가전망 변화가 성장률을 0.1~0.2% 포인트 낮추는 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상치를 크게 빗나간 유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고유가가 장기화할 경우 실물경기의 위축과 성장률의 하향조정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올 추석 현금수요 4조 3,000억원

올해 추석관련 현금수요(추석전 10영업일 기준)가 작년보다 2천억원 가량 늘어난 4조3천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한국은행이 12일 추정했다.

한은은 "중견·대기업의 경우 추석 상여금 지급업체수가 다소 줄었지만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연휴 일수도 지난해 4일에서 올해는 5일에 이르는데다 추석 연휴 직전에 급여가 대부분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 수요가 작년보다는 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추석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금통화를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며 추석전 늘어난 현금통화는 연휴기간 이후 대부분 환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통화환수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석 관련 현금수요는 대체로 연휴 10영업일 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1~5영업일 전에 집중적으로 증가하며 연휴가 끝난 후 10영업일에 걸쳐 70~80%가 금융기관으로 환류된다. /연합뉴스

소송비 대주는 보험 나온다

獨 법률비용전문보험사 허가 신청

법률 상담이나 소송 등 법적 분쟁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법률비용보험이 국내에도 선보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독일의 전문 법률비용보험사인 DAS가 국내 보험업 예비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상 한국에 세울 보험사 명칭은 가정 DAS관리보호보험주식회사이며 자본금은 150억원이다.

이 회사는 예비허가와 분허가를 받은 뒤 서민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영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비용보험은 보험료를 받고 가입자의 각종 법적 분쟁으로 법률 비용이 발생하면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 활성화돼 있다.

국내 일부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장기손해보험 등을 통해 부가적으로 법률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상 범위가 작고 대상도 가입자가 가져다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효용성이 낮은 실정이다.

금감원은 법률비용보험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 2005년 기준 1천808만건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이중 소송 사건은 556만건(인구 9명당 1건)에 이를 정도로 국민이 법적 분쟁에 노출돼 있어 관련 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직접 만드는 '화장품 키트' 불법

불법 반점 발생 등 피해... 단속 나서

소비자들이 직접 화장품을 만드는 '화장품만들기 키트'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보건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들 여러가지 원료를 조합해 원하는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DIY(Do-It-Yourself)' 형태의 화장품만들기 키트는 불법 화장품 제조행위에 해당한다며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화장품만들기 키트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며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거러움과 붉은 반점 발생 등 소비자 피해사태가 보고되고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으로 인식되거나, 화장품으로서의 효능이 있다고 표방하는 물품을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는 화장품 제조에 해당하므로 화장품만들기 키트의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 화장품만들기 키트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감시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 또는 부정, 불량 화장품 신고는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또는 지방식약청(의약품팀)에 하면 된다. 문의(02)3156-8069/연합뉴스

한국 투자환경 '낙제점'

100점 만점에 49점 평가

商議, 제조업체 300곳 조사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은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이 진출대상국의 70% 남짓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해외 진출대상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특히 부족하다고 기업들이 평가한 부분은 노사관계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업체 300곳(응답기업 287곳)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투자환경 평가와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은 국내의 투자환경에 대해 100점 만점에 49.3점을 준 반면 진출국은 68.9점으로 평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실시했던 같은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은 58.8점에서 9.5점이 떨어진 반면 진출국은 1.9점이 올라 양쪽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부문별 국내 투자여건을 해외와 비교해 보면 노사여건(국내 51.9점, 해외 73.9점), 입지 및 공장설립 여건(국내 54.0점, 해외 72.8점) 등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이었으며 금융여건(국내 60.7점, 해외 59.0점), 행정여건(국내 58.7점, 해외 63.1점) 등은 국내의 격차가 달랐다.

국내 투자여건의 문제점으로는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를 지적한 기업이 79.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과다한 규제'(8.4%)와 '정책의 일관성 부족'(7.3%), 'SOC 등 인프라 부족'(1.4%)을 든 기업이 있었다.

부문별로 지적된 구체적인 문제점을 보면 ▲노사부문에서는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47.3%)와 '낮은 노동생산성'(28.1%)이 ▲입지 및 공장설립 부문에서는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부족'(35.5%)과 '과다한 불투명성'(27.0%)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금융부문에서는 '높은 대출금리'(39.0%)와 '담보위주 대출관행'(28.7%) ▲조세부문에서는 '과도한 법인세 부담'(50.0%)과 '불필요한 세무조사'(29.1%) ▲행정부문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37.5%)와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19.3%)가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연합뉴스



추석 상차림 살 안찌는 식용유 사용하세요

롯데시네마가 12일 서울 롯데미트 서울역점에서 체지방이 쌓이지 않는 신개념 건강 식용유 '헬씨리세타'를 이용해 만든 추석 상차림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도 지역간 편차 심각

최근 6년간 신규고용 60% 수도권에 몰려

광주 증가세 둔화... 전남은 6만3,000명 감소

정부의 수도권 분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간 새로 생긴 일자리의 60%가 경기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인구 감소 및 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일자리가 되레 감소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지역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허재원 중앙대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COMM빌딩에서 열린 '지역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 교수는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일자리는 모두 2천115만6천명으로,

6년 전인 지난 2000년(2천315만1천명)에 비해 9.4%(199만5천명) 늘었다. 이는 연평균 1.5%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경기, 대전, 울산 등의 일자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경기의 경우 6년간 매년 4.3%의 일자리 증가세를 보여 전국 평균의 3배에 이르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또 6년 새 일자리가 117만1천명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국내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58.7%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남은 지난해 일자리가 91만8천명에 그쳐 6년 전(98만1천명)보다 6.

4%(6만3천명) 감소했다. 이는 일자리 증가 폭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신규 일자리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이와 관련, 광주는 일자리가 2000년 55만3천개에서 6년 새 11.9%(6만6천명) 늘어날 만큼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5년 이후 1년간 일자리가 '제자리'에 머문 데다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 수도 1천명 감소하는 등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허 교수는 "전국 생산가능인구의 22.6%만이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일자리의 3분의 2가 몰리는 사이 전남과 전북, 경북, 부산 등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 만큼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美 서브프라임 증시압박 끝났다"

외국인 투자자 매도는 한국 불확실성 탓

투자의 대가 모비우스박사

신중시장 투자의 대가인 마크 모비우스 박사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락됐다고 진단했다.

템플턴에셋매니저먼트에서 이머징마켓 투자를 총괄하고 있는 모비우스 박사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머징마켓 리빙 및 전망'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모비우스 박사는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은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눠서 봐야한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3~4년간 지속돼왔으나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모비우스 박사는 이와 관련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0.50% 인하될 가능성을 시장이 이미 반영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폭이 0.75%로 커지면 증시

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하고 달리 인화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시장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증시는 강세국면이 약세국면보다 훨씬 길었고 강세국면의 상승폭이 약세국면의 하락폭보다 컸다"며 "언제 주식을 사야하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돈을 갖고 있을 때'라며 증시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나타난 외국인 매도의 배경으로는 온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이슈와 기업재구조 요인을 꼽았다.

모비우스 박사는 "이 두가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아울러 중국, 대만, 태국, 남아프리카, 터키 등 이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한 점도 외국인들의 한국시장 매도를 촉발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이지오스	[정규직] 순천 클러스터 운영관리자(S.V)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09/14	02-2116-8029
푸드엔	[대기업] 현대해상 보상서비스센터 사무직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9/15	02-885-1199
비추얼넷	네트워크 통신 기술직 신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6	070-7012-5811
대창E&T	[SK텔레콤 대창대리점] 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7	062-383-6831
내소날푸라스틱	국내 영업사원	대졸/경력3년	2400~2600	09/17	062-526-9733
엔하이테크	보안/시스템/네트워크/DBA 엔지니어	초대졸/경력3년	2600~2800	09/17	062-371-9100
엔하이테크	엔지니어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8	062-971-0940
P.A.T(독립문)	광주신세계 백화점 P A T 판매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9/18	062-360-1525
한국투자자산호지축은행	각 부문별 신입 및 경력직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8	031-788-4030
세정산업	디존프로그래밍 경력직	고졸/경력1년	1400~1600	09/18	062-385-9300
비남양모터스	서비스리셉션,출납 업무 담당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9	062-384-7713
골드라인정보통신	가맹점 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0	062-527-2077
전산물류유통센터	웹디자인	고졸/경력2년	1800~2000	09/20	062-374-4244
정원교육문화	[정원교육문화]친철한 정원선생님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9/21	051-465-666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